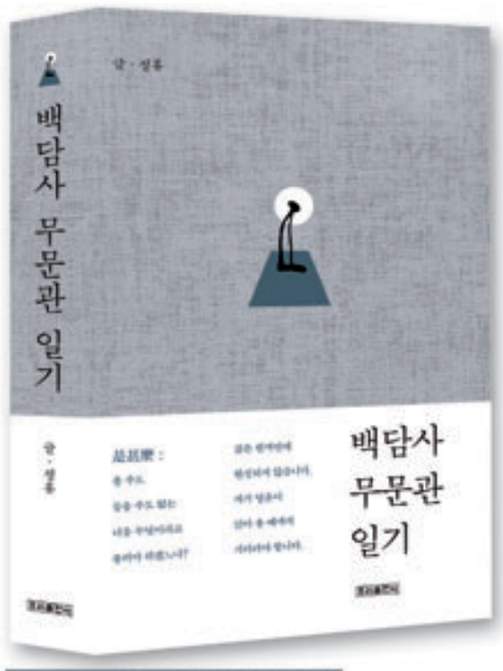
是甚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너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죽음 언제든 온다는 걸 알면
마음 비우고 살아갈 수 있어"

"집착 내려놓을 때 내적 성숙 가능
나이 들수록 자기 자신 돌아보길"

백담사 무문관 일기

글 · 정휴/신국판 양장/16,000원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62 전화 (02)313-5047

그는 몸과 마음에서 無碍의 자유를 풀어내는 雲水이다.
衲僧과는 평생 把手共行한 寒山 같은 도우이다.
일찍이 禪敎를 全錄掌握한 宗門의 聖骨이나 기꺼이 범추를 박대하지 않으니 그 法衣는 강호를 덮고 남았다.
陋巷에 머물 때는 승단이 불조혜명의 구심처가 되도록 온몸을 던지고 蘭若에 들어서는 생사의 關頭에서 任運自在를 보여준 法主가 바로 禪師다.
거년에는 설악산 無門關에서 保任하더니 門 없는 門을 부수고 나와서는 드디어 천하에 한 물건을 내놓았다. 그 末後句는 一隻眼을 얻은 작가 宗師라 할지라도 혀를 빼물게 하는 것이니 어찌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납승은 더 이상 보아야 할 눈도 말해야 할 입도 없다. 왜 그런지는 책을 펴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 설악산 백담사 무문관 조실 무산오현 –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이 치열하고 표현하는 一言一句가
古劍처럼 빛났다.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하 –



2017 소백산 용두리 햇호두

소백산 청정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신품종 호두



1년의 결실인 소백한 용두리 호두는
농부의 정성과 청정자연을 머금은 호두의 선물입니다.

소백산 고랭지의 청북 예천 용두리는
품질과 맛 좋은 호두가 내기로 유명하여 예부터 호두골 이라 불렀습니다.

소백산 용두리 신품종 호두는 알이 크고 속살이 실하며 깨기가 쉽습니다.
토종호두보다 인기 많고 가격이 높은 이유입니다.
간혹 거뭇한 호두알은 겉껍질 색이 착색된 것입니다.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향긋한 소백산 용두리 햇호두,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
수차례의 선별작업으로 속이 비거나 기준보다 작은 호두알은 걸러냈습니다.
그래도 기준 이하의 호두가 있을까봐 조금 더 넉넉히 담았습니다.

Walnut

호두의 효능



건과일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 기능
동맥경화, 피부노화방지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 60-70% 함유
심장질환 예방, **항암**, **당뇨**에 효과
하루 **7알** 권장
두뇌 **노화 예방**, **뼈 건강** 항상

호두 이야기



용두리 호두 농장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튼튼하게 자란 호두나무를 보면 뿌듯하답니다.
9월에 호두가 영글기 시작하면 호두를 털기 시작합니다. 호두둑! 떨어지는 호두비에 머리를 안 맞으려면 잘 피해야 한답니다.
건조까지 마친 소백산 용두리 호두는 선별작업을 거칩니다.
속이 비고 깨진 호두알을 골라 낸 후 드시게 편하게 포장을 한답니다.
벌어지지 않은 호두알은 숙성 후 탈피기에서 청피를 제거하고 세척합니다.

100% 국산 무농약
제초제 쓰지 않은 청정호두

1kg 28,000원 (택배비 3,000원 별도)
2kg 56,000원 (택배비 무료)

■ 주문 ·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 입 금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聖鐘社 SUNG JONG SA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 (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전시관 : 서울시 종로고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